

## 구르나 프로젝트에 나타난 하싼 화티의 건축과 정기용의 건축에 관한 비교 고찰

-하싼 화티 著·정기용 譯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의 영향관계를 매개로-

A Comparative Study of Hassan Fathy's Architecture  
Shown in Gourna Project and Chung Guyon's Architecture  
-through the Intermediation of *Gourna: A Tale of Two Villages*,  
Written by Fathy and Translated into Korean by Chung-

정 세 현

Jeong, Se-Hyun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김 현 섭\*

Kim, Hyon-Sob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 Abstract

The Korean architect Chung Guyon(1945~2011) is the translator of the Korean edition of *Gourna: A Tale of Two Villages*(1969) written by the Egyptian architect Hassan Fathy(1900~89). This fact, along with the facts that Chung changed the topic of his graduation thesis(1983) for UPA no.6 in Paris and that he became a supporter of earth architecture after he returned to Korea in 1986, confirms that Chung was strongly influenced by Fathy's architecture in Gourna project. Therefore, the present paper aims at extracting didactic characteristics of Fathy's architecture from the book and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Chung's architecture. The categories of the characteristics extracted from the book (or his architectural activities in the Gourna project) are: clay/earth architecture; communicative and cooperative architecture; and critical stance towards society, and these are commonly found in Chung's architecture, too, not without differences from Fathy's owing to the gap between the two architects' contexts. Reviewing these characteristics, this paper argues that Fathy and Chung tried to improve society in each context, working as both architect and social activist.

주제어 : 하싼 화티, 정기용, 구르나 마을, 흙 건축, 공공건축

Keywords : Hassan Fathy, Chung Guyon, Gourna villages, Clay/Earth architecture, Public architectur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년 전 타계한 건축가 정기용(1945~2011)은 다양한 공공건축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은 족적을 남긴 인물로 거론된다. 우리의 현실과 일상을 끌어안고 건축 작업으로 승화시킨 그에게는 “흙 건축의 대가”, “건축계

의 공익요원”, “사회적 건축가”, “감응의 건축가”,<sup>1)</sup> “생태 건축가”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만큼 그의 건축이 보여준 공공성, 주민과의 “협치(governance)”, 환경과의 교감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혹자는 정기용이 건축가를 “사회적 조절자(social coordinator)”로 여기고 공동디자인을 “사람과 건축과 역사와 시간이 만들어내는 공동의 창작품”으로 봤던 입장에서, H. 롬바흐(Heinrich

\* Corresponding Author : archistory@korea.ac.kr

1) 이종호, 「정기용을 부르는 이름들」(일민미술관 편, 『감응: 정기용 건축』, 일민미술관, 2010, 8쪽

Rombach, 1923~2004)의 “공(共)창조성”을 읽기도 한다.<sup>2)</sup>

정기용의 프랑스 유학시절(1972~86)의 사상 형성에 관해 연구한 정인하(2012)에 따르면 그는 앙리 르페브르(1901~91)와 미셸 마페졸리(Michel Maffesoli, 1944~)의 서로 다른 “일상성” 개념에 영향을 받았고,<sup>3)</sup> 마틴 하이데거(1889~1976)와 가스통 바슐라르(1884~1962)의 거주 및 집에 대한 생각도 흡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적 도시계획가였던 아나톨 콥(Anatole Kopp, 1915~90) 교수를 파리 8대학에서 만난 것도 그의 사상 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sup>4)</sup>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중요하고도 독특한 영향을 미친 이가 이집트 건축가 하싼 화티(Hassan Fathy, 1900~89)다. 다른 지식인들의 영향이 그의 사상적 측면의 형성에 더 큰 비중이 있었다면, 화티의 영향은 사상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의 실제적 건축 활동과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런 영향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로 우선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정기용이 화티의 대표작인 하층민들을 위한 구르나 마을 조성 프로젝트(1945~48)를 접하고 자기의 파리 제6건축학교 졸업 논문(1983) 주제를 바꾼 점이며, 둘째는 그가 번역해 출판한 유일한 책이 화티의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였다는 점이다.<sup>5)</sup> 셋째로 정기용은 화티가 이집트에서 그랬듯 한국 땅에 맞는 흙 건축을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항은 정기용이 어떤 층위로 건축가 하싼 화티와 구르나 프로젝트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고찰을 요청한다. 더욱이 화티든 구르나 프로젝트든 우리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주제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를 살다간 두 사람의 건축에는 온전한 영향관계 속에서만 파악하기 힘든 공통점

2) 하이데거의 제자인 롬바흐는 창조란 본래 한 개체가 일방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의 열린 대화 속에서 이뤄진다는 “공-창조성(Konkreativität)”을 주장한 바 있다. 전동진, 「건축가 정기용과 공(共)창조성의 철학」, 존재론연구, 34집, 2014, 37~63쪽.

3) 르페브르가 자본주의로 인해 왜곡된 일상에 저항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마페졸리는 대중들의 일상에 내재한 힘과 지혜의 긍정성을 용인한다. 정기용은 이런 일상성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인하, 「건축가 정기용의 사상 형성과 프랑스 68혁명 지식인들」, 프랑스학연구, 61권, 2012, 229~250쪽.

4) 서정일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기용은 콥의 책을 꼭 번역해보고 싶어 했다. 정인하, 2012, 236쪽.

5) 하싼 화티,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 민중과 함께 하는 건축』, 열화당, 1988. 열화당의 「미술선서」 시리즈로 나온 이 책은, 2000년 같은 출판사의 「미술책방」 시리즈로 다시 출간됐다.

6) 선행연구 중에서는 정인하(2012)가 화티를 일부 다루긴 했지만 프랑스 68혁명의 지식인들을 주 대상으로 했던 까닭에, 그에 대한 집중적 조명과 서술에는 한계가 컸다.

과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둘 사이의 영향관계를 전제하는 가운데, 정기용의 건축을 구르나 프로젝트에 나타난 하싼 화티의 건축과 비교 고찰하는 데에 목표를 뒀다. 여기에는 정기용(의 공공)건축의 형성 배경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 있다. 특히, 화티가 구르나에서 보여준 건축가의 공공적 활동이 워낙 두드러졌기 때문인데, 두 사람은 공히 각각의 콘텍스트에서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매우 강하게 전하고 있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두 건축가 사이의 매개물은 결국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다. 따라서 본고는 이 책에 대한 분석을 연구방법의 핵심에 둔다. 즉, 이 책으로부터 하싼 화티 건축의 특성을 도출할 것이며, 그러한 특성을 정기용의 건축에 투사할 것이다. 이 책 「역자 서문」에 표출된 정기용의 전폭적 화티 수용은 이런 프레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가 화티와 정기용 사이의 영향관계를 전제한다 하여 후자의 건축이 온전히 전자의 영향으로 형성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본고는 정기용에게 영향을 준 복잡다단한 사회적 요인과 인사들을 인식하는 가운데, 화티를 정기용의 중요한 롤 모델 중 하나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전제하에 본고는 2장에서 건축가 하싼 화티와 구르나 프로젝트를 개괄할 것이고, 3장에서는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에 나타난 화티 건축의 교훈적 특성을 ‘흙 건축’, ‘소통과 협동의 건축’,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가장 뚜렷한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보고자 한다. 여기서 ‘교훈적 특성’은 구르나 프로젝트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정기용이 취했을 법한 긍정적 사항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다. 4장에서는 정기용의 파리 제6학교 졸업논문에 나타난 화티의 영향을 살핀 후, 화티 건축에서 도출한 세 주제에 따라 정기용의 실제 건축 활동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의 논의를 종합하고 비판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글 전체를 맺고자 한다.

## 2. 하싼 화티와 구르나 마을 프로젝트

### 2-1. 건축가 하싼 화티

하싼 화티는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한 임호텝(Imhotep, BC 2650~2600경) 이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집트 건축가로 손꼽힌다.<sup>7)</sup> 물론 그 명성은 구르나

7) Sokol Huta, “Toward a Contemporary Tirana Abstract Public Spaces:

마을 프로젝트를 통해서였다. 190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화티는 카이로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1926년 졸업했으며, 1930년부터 1946년까지 같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달 라스토퍼(1985)에 따르면, 그가 대학에서 19세기 보자르식의 건축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교수법도 그랬을 거라 추정되긴 하지만 그의 초기 경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sup>8)</sup> 단, 1930년대 후반부터 이집트 토속의 전통에서 건축의 원천을 찾기 시작했던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그가 1937년의 한 전시회에 출품한 여러 주택 디자인이 진흙 벽돌 구법과 이슬람적 요소의 조합을 뚜렷이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이로 근교의 농업협회 농장(1940~41)에서 실제로 진흙 벽돌 축조술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가설 형틀 없이 돔(dome)과 볼트(vault)를 완성하는 구법으로서 그가 이집트 내륙 아스완(Aswan) 지역에 있는 누비아(Nubia) 마을의 전통에서 차용한 방법이다. 목재가 귀한 지역에서 형틀 없이 공사하는 수법은 저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이후의 그의 건축에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요소다. 농업협회 농장에 곧 이은 사례에는 사이드 주택(Said House, 1942/1945)과 나스르 주택(Nasr House, 1945) 등의 개인 주택이 있고, 신 구르나 마을(1945~48)도 뒤따른다. 무엇보다, 본고의 초점인 후자가 가능했던 것도 이 같은 진흙 벽돌 축조술의 경제성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주민참여 건축이나 지역 전통의 계승이라는 이슈 역시 수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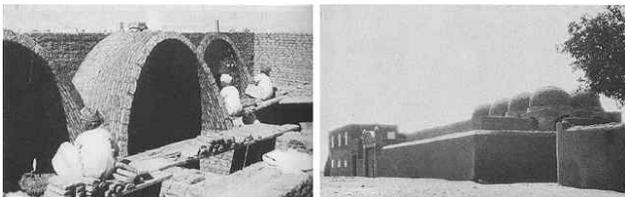


그림 1. 누비아식 벽돌 쌓기 및 농업협회 농장(1940~41)  
(Hassan Fathy, *Architecture for the Poor: An Experiment in Rural Egypt*, 1973)

구르나 프로젝트 이후에도 그는 이런 이슈를 계속 발전시켜 자기 작업에 적용한다. 그리고 후기에는 그간의 건축어휘와 개념을 더 확장해 돌과 구운 벽돌을 도입하기도 했고,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건축에서 착안해 신체의 비례에서 도출한 추상적 형식원리를 적용하기도 했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의 확장된 외연은 여

전히 이집트의 풍토와 전통 안에서 융화됐다. 이로써 그의 건축은 단가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었던 국제 모더니즘에 대한 지역적 대안의 사례로 강하게 인식되기도 했다.<sup>10)</sup> 그는 실무 건축가뿐만 아니라 교육가이자 사회활동가로서 활발히 공헌했고, 1977년에는 국제적정기술학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ropriate Technology)를 창립하기도 했다.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아가 칸 건축상(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 1980)과 UIA 금메달(1984) 등 다양한 상을 받는다.



그림 2. 테베 유적지의 고분 일대에 형성된 옛 구르나 마을 (Fathy, 1973)

## 2-2. 구르나 마을 프로젝트(1945~48) 개요

하싼 화티를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게 한 구르나 마을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룩소르 서안에 위치한 옛 구르나 마을의 고분 도굴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근처의 대지에 완전히 새로운 정주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옛 구르나 마을은 고대도시 테베의 유적지와 가까이 위치해 주변에 신전과 파라오 및 왕족의 무덤들이 많았고, 구르나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고분 도굴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들의 고분 도굴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자 이집트 정부도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이곳 7000여 명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하고, 화티에게 프로젝트를 맡긴다. 그가 행해온 저렴한 건축작업에 주목했기 때문이다.<sup>11)</sup>

옛 구르나 마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점에 새 정착지를 위한 5에이커(약 2만여 km<sup>2</sup>)의 부지가

9) 화티는 구르나 프로젝트 진행 당시 룩소르 신전을 연구한 고고학자 슈발러 드 루비츠(R. A. Schwaller de Lubicz)를 만나 고대 이집트 건축의 비례원리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 그가 도출한 원주율, 황금비, 파라오 큐빗 등의 적용법은 서양 르네상스의 비례론과도 공명한다. Rastorfer, 1985, pp.48~51.

10) 일례로 다음 역사서를 보시오. William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3<sup>rd</sup>ed., Phaidon, London, 1996; Diane Ghirardo, *Architecture after Modernism*, Thames & Hudson, London, 1996.

11) 옛 구르나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Paul Duggan, *Villager Participation in the Relocation of El Gurna, Egypt*, Clemson University Ph.D Thesis, 2012, pp.115~118.

The Pacemaker of Urban Regenerative Processes for Sustainable People-Friendly Cit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2013, p.930

8) Darl Rastorfer, “The Man and His Work” (J. M. Richards et al., *Hassan Fathy*), Concept Media, Singapore, 1985, p.30

마련됐다. 1945년 8월 화티는 이곳에 900세대를 위한 마을계획을 시작한다. 마을 전체는 직사각형 풀이며 주요 도로에 의해 네 구역으로 나뉘는데, 도로망은 일률적 직교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도로가 교차하는 마을 중앙에는 모스크와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이 집중 배치됐으며, 마을 전체 구역에 걸쳐 각 세대를 위한 주택이 계획된다. 각 주택은 2층 규모로서 중정을 중심으로 모든 방을 배치했는데, 위생을 고려해 옛 구르나의 방식과 달리 주택마다 개량된 화장실 및 별도의 외양간을 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본 주택 안은 예시일 뿐, 화티는 이를 각 세대의 필요에 따라 변형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대부분의 건물은 진흙 벽돌을 기본 재료로 했고, 천장은 누비아 기술을 활용한 돔과 볼트로 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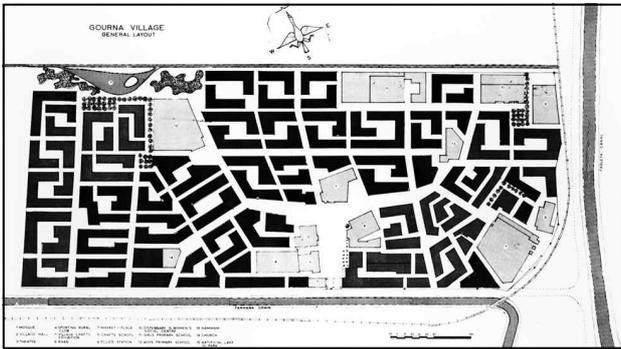


그림 3. 신 구르나 마을 마스터 플랜(1945) (Fathy, 1973)

프로젝트 기간은 총 30개월이었으나, 실제 작업한 기간은 11개월 반이었고,<sup>12)</sup> 지어진 주택은 계획된 것의 1/5 정도(900세대 중 약 130세대)에 불과했다.<sup>13)</sup> 프로젝트 미완의 주요 원인에는 비협조적인 구르나 주민들의 태도, 턱없는 인력난 및 수준 이하의 협력자들, 고착된 관료주의와 기존의 건축 운영 시스템 등이 있다. 그러나 화티는 그의 실패담을 책으로 출간함으로써 구르나 프로젝트가 과거의 온전한 실패만으로 머물지 않게 했다. *Gourna: A Tale of Two Villages*(1969)와 개정판인 *Architecture for the Poor*(1973)는 당시 건축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정기용은 “1970년대 유럽 건축학도들에게 이 책은 마치 건축성경과도 같이 탐독”됐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sup>14)</sup>

12) 1945년 8월의 도면 작업에 이어 10월에 부지공사를 시작했으나, 진흙 벽돌 제조를 위한 질의 반입이 늦어져 작업 진행은 지지부진했다. 1946년 10월 작업이 재개됐으나 예산문제로 1947년 1월 작업이 또 중단됐고, 그해 9월에 가서야 다시 시작됐다. 1947~48년에는 홍수로 인해 적극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화티, 1988, 187~222쪽.

13) 공공시설은 모스크, 극장, 남학생 초등학교 등 여러 건물이 세워지긴 했지만, 무료 진료소, 경찰서, 여성 센터 등 원래 계획됐던 건물 중 실현되지 못한 것도 많다. J. M. Richards *et al.*, 1985, p.87, 162.

14) 정기용, 「역자 서문」(하산 화티, 앞의 책), 열화당, 1988, 9쪽

마을 건설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2011년 4월 기준으로 이곳에는 253가구가 살고 있는데, 건물의 낙후와 붕괴 문제로 그해 UNESCO의 보존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sup>15)</sup> 그러나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는 2011년 여름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다.

### 2-3. *Gourna: A Tale of Two Villages*(1969) 및 이후 판본과 그 평가

구르나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원은 물론 화티 자신의 책이다. 전술했듯 그는 이 프로젝트의 배경, 진행 이력, 그리고 결과를 상세히 기록해 1969년 *Gourna: A Tale of Two Villages*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Ministry of Culture, Cairo). 그리고 내용을 약간 줄여 1970년 파리에서 불어본 *Construire avec le Peuple: Histoire d'un Village d'Égypte, Gourna*를 출판했고,<sup>16)</sup> 1973년에는 다시 영문본을 *Architecture for the Poor: An Experiment in Rural Egypt*라는 제목으로 출판한다(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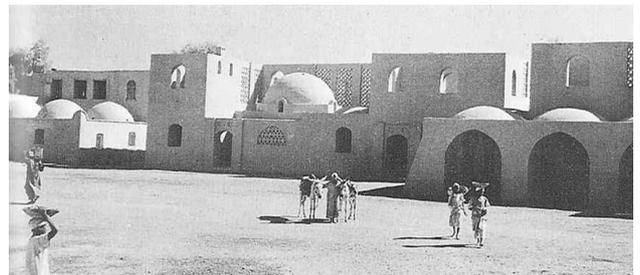


그림 4. 실현된 신 구르나 마을의 거리 (Fathy, 1973)

이 책은 전체 네 장에 부록이 첨부된 형식이다. 본문 1~4장은 음악의 교향악에 빗대 제목이 붙여졌다. 1장의 ‘Prelude: Dream and Reality’는 이집트 농촌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진흙 벽돌집을 제안하고, 자신이 구르나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경위를 밝힌다. 2장인 ‘Chorale: Man, Society, and Technology’는 이집트의 전통과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기법, 고객 및 장인의 참여 필요성, 공공건축, 사회-경제기반에 대한 제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3장의 ‘Fugue: Architect, Peasant, and Bureaucrat’는 구르나 프로젝트에 대한 화티의 회고인데, 그는 마을 전체의 건설 과정을 세 시기(1945~46; 1946~47; 1947~48)로 나눈다. 4장의 ‘Finale:

15)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Safeguarding Project of Hassan Fathy's New Gourna Village: Preliminary Phase Document*, 2011

16) 불어본의 주 제목은 ‘Building with People(사람들과 함께 짓기)’로 번역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주민참여가 제일 강조됐다.

Gourna Dormant'는 프로젝트가 미완으로 종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말한다. 한편, 부록은 노동자 품삯과 건설비용 계산법, 노동자 교육, 작업조직, 벽돌 만드는 법 등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상술하고 있다.<sup>17)</sup>

책에 대한 반향은 이집트에서보다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책이 출판된 시기가 국제적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크게 일어나는 가운데 대안이 모색되던 때였다.<sup>18)</sup> 많은 평자들이 이 책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구르나 프로젝트와 화티의 활동에 대해 무척 호의적으로 평가했다.<sup>19)</sup> 비록 “전면적 계획(total planning)”이나 그의 복고적 전통관에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고(Shaheen, 1975), 가난한 이집트 농촌의 특수 사례가 도시적 환경 속에서도 적용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지만(Safdie, 1975), 이런 평가는 대개 구르나 프로젝트가 보여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에서 긍정적 교훈을 도출하는 가운데 논의된 점들이다. 특히 M. H. 샤흐이 화티를 온건한 이상주의자이자 (르네상스형 인간을 연상시키는) “현대판 보편인(a latter-day universal man)”으로 본 바는 특기할 만하다. 구르나에서 화티는 “사회학자, 인구통계학자, 경제학자, 노동자 조직가, 공공위생 활동가, 교사, 기획자, 심지어 의상 디자이너”이기도 했는데(Shaheen, 1975), 건축가가 공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행했다는 면에서 정기용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 3. 정기용이 번역한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와 하싼 화티

정기용의 하싼 화티 번역본은 1970년의 불어본을 저본(底本)으로 한다. 그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것은 1986년이고, 이 번역본이 최초 출판된 것은 1988년 8월이었다.<sup>20)</sup> 『역자 서문』대로라면 번역 작업에 4년 이상 소요

됐는데, 귀국 전후의 상당 시간과 에너지를 이 책의 번역에 쏟은 셈이다. 그만큼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는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띠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대한, 결국 구르나에서 보여준 화티의 활동상에 대한 정기용의 입장은 『역자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역자 서문』에 담긴 정기용의 입장을 먼저 살펴본 후, 이 책에 서술된 구르나 프로젝트에서의 화티가 어떤 면에서 정기용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추론해보자.

#### 3-1. 정기용의 「역자 서문」

이 글 전반부에서 정기용은 먼저 하싼 화티와 구르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한 뒤, 책의 구성 내용을 개괄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자신이 왜 이 책을 번역하게 됐는지 동기를 밝힌다.

그는 신 구르나 마을을 “혁명적이고도 제삼세계의 현대건축사상 유례가 없었던 아름다운 마을”로 여겼다. 그 일차적 이유는 이집트에서 장구한 세월 사용해온 진흙 벽돌을 도입했고, 그 재료의 전통적 축조술을 되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건축재료와 기술의 사용이 더 중요한 까닭은 마을 주민들을 교육해 건설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수입원을 창출함과 동시에 건축의 공공적 측면을 우선시하게 했던 데 있고, 결국은 농촌 공동체와 인간성의 회복을 꿈꾸게 했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물지각하고 병든 관료주의와의 투쟁”을 감행했던 화티는 정기용에게 “제삼세계 여러 나라들의 건축이 지향해야 할 모범”이 됐다. 다시 말해 정기용은 “민중을 위해 건축하고자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 화티에게서 “건축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간파했던 것이다.

이 같은 정기용의 하싼 화티 독해는 책의 두 가지 번역 동기에도 직결된다. 첫째는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의 전통건축이 붕괴하고 전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이 서울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됐는데, 이런 “살풍경한 환경”의 극복을 위해 구르나 프로젝트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유다. 둘째는 서양건축 일변도의 상황에서 건축인, 행정인, 교육자들에게 제3세계 전통건축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흥미롭게도 이런 번역 동기는 흙 건축에 대한 권유로 귀결된다. 그는 우리에게서 사라진 흙집이 실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임을 지적하며 이를 다시 되살리길 기대했다. 요컨대 정기용은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를 한국의 농민, 건축가, 행정이 모두를 위한 필독서로 여기는 가운데, 하싼 화티와 더불어 “새로운 새마을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 각주 5)를 참조하시오.

17) Hassan Fathy, *Architecture for the Poor: An Experiment in Rural Egyp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73

18) 예컨대 팀텐의 알도 반 아이크는 원시사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건축의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했고, 머나드 루도프스키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출판한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s* (1964)는 건축가 없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토착건축의 가치를 인식시켰으며, 루시앙 크롤과 같은 건축가는 루뱅 카톨릭대학교 기숙사(1969~72)를 통해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

19) 다음의 서평을 보시오. Carl W. Condit in *Technology and Culture*, Vol.15, No.2, 1974, pp.343~345; M. H. Shaheen i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6, No.4, 1975, pp.511~514; Moshe Safdie, “Joy in Mudville”,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1975; Labelle Prussin in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Vol.37, No.1, 1978, p.55; Laszlo Nemeth in *Leonardo*, Vol.12, No.1, 1979, p.83.

### 3-2.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에 나타난 하싼 화티 건축의 교훈적 특성

그렇다면 전술한 정기용의 건축적 입장은 화티의 구르나 프로젝트에 대한 서술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까? 구르나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2-2절에 개괄한 바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기용이 이 책에서 취했을 법한 화티 건축의 교훈적 특성을 책 본문에 근거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 특성은 1-2절에서 밝혔듯 ‘흙 건축’, ‘소통과 협동의 건축’,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소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 (1) 흙 건축

신 구르나 마을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성은 진흙 벽돌을 위시해 주요 건축재료로 흙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흙 건축은 지역 전통과의 연속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역자 서문』에서 봤듯 정기용에게 매우 직접적인 적용 사항이 됐다.

하지만, 화티가 흙 건축을 시도한 데는 그런 의미 아래에 더 구체적인 배경이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인데, 2-2절에 서술했듯 이것이 바로 그에게 이 프로젝트가 주어진 까닭이다. 흙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콘크리트와 목재에 비할 수 없이 저렴했고, 구르나의 풍부한 노동력만으로 벽돌제조가 용이했으며, (누비아 기술의) 숙련된 벽돌공은 미장이 삼만 있으면 큰 아치를 만들 수 있었다. 이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농민들 스스로 자기 집에 대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도 내포하며,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벽돌의 곡선 구조가 자연스러운 비례로 인한 아름다움까지 창조한다. 이에 더해, 진흙 벽돌 건축술은 오랫동안 잊힌 전통기술을 발굴하고 주민들을 교육해 기술자로 양성함으로써, 마을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뜻깊다.<sup>21)</sup> 이처럼 구르나의 흙 건축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전통의 회복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정기용에게 크게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단, 여기서 유념할 점은 화티의 흙 건축이 과거의 복고주의나 진부한 토속건축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책의 곳곳에 “창조적 행위”로서의 건축작업에 대해 강조했다.<sup>22)</sup> 그리고 걸으로는 두드러지지 않을지

21) 이 같은 흙 건축의 장점에 대해서는 화티, 1988, 90~97·153~157쪽 등을 보시오.

22) 예컨대, “건설한다는 것은 창조적 행위이며, 이 창조과정 중 결정적인 순간이란 바로 구상하는 순간으로, 이때에 착상한 것이 형태를 얻게

모르지만, 주택 평면의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구성,<sup>23)</sup> 벽돌 제조공정의 합리화,<sup>24)</sup> 프로젝트 운영의 측면 등에서 창조성을 심분 발휘했다.

#### (2) 소통과 협동의 건축

구르나에 나타난 화티 건축의 또 다른 특성은 건축가가 건축과정 중 마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동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런 특성은 ‘주민참여 건축’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다. 화티에 따르면 현대 기술의 발전은 거주자에게서 집 짓는 즐거움을 빼앗아 버렸다. 과거 집 주인은 여러 장인들이나 시공자들을 직접 만나 함께 일했으며, 최종 결과물에 스스로 책임졌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결정권을 직업 건축가에게 위임하고, 그가 공급한 집에 살게 됐다.<sup>25)</sup> 특히 대규모 주거계획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건축가가 몇 가지 주거 유형만을 설정해 모두에 적용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다양성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화티는 구르나에서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일간 200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등<sup>26)</sup> 주민들과 소통해 그들의 요구를 설계에 반영하려 했다. 또한, 주민들이 시공에 협력하는 협동조직도 제안한다.<sup>27)</sup>

이에 더해 화티는 장인들을 건축 협력자로 복귀시키고자 노력했다. 그에 따르면 건축가가 장인에게서 빼앗았던 일로부터 다시 해방된다면 건축가는 전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벽돌공, 소목, 유리채색공과 같은 전통적 건축참여자들은 건축가의 대략적 지침만 있으면 각자의 작업을 스스로 결정해 최선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티는 구르나에서 장인들을 작업자로 복귀시켜 그들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sup>28)</sup> 이처럼 구르나에서의 화티는

되고 새로운 창조의 모든 면모가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라든가, “우리에게는 누비아에서 습득한 기술이 있었지만 [...] 다른 세대 또는 다른 지방의 가장 훌륭한 건축물일지라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등의 문장이 그렇다. 화티, 1988, 44~45, 72쪽.

23) 옛 구르나 마을 사람들은 방과 외양간이 혼재된 동굴집에서 살았다. 그러나 화티의 주택은 외양간은 물론이고 모든 공간이 기능에 따라 배치된 점에서 상당히 현대적이었다. 이런 공간 배치가 구르나 사람들에게는 100년이나 이른 것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Hana Taragan, “Architecture in Fact and Fiction: The Case of the New Gourna Village in Upper Egypt”, Muqarnas, Vol.56, 1999, pp.174~176.

24) 양질의 벽돌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수동식 압착기”를 고안한 점이 그렇다. 화티, 1988, 121~122쪽.

25) 화티, 1988, 51~60쪽

26) 화티, 1988, 230쪽

27) 그러나 화티의 바람과는 다르게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주 자체에 불만을 가졌던 까닭에 주민참여가 능동적이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는 공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고분 도굴로 살기를 원했다. 화티, 1988, 216~217쪽.

28) 화티, 1988, 61~68쪽

건축작업에의 주민참여와 장인 복귀를 통해 함께하는, 그리고 “스스로 건설하는” 마을 꿈꿨다. 이와 유사한 소통과 협동에 대한 의지는 정기용의 건축에서도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

### (3)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화티의 구르나 프로젝트는 사회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읽을 수 있다. 화티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셋으로 파악된다. 첫째는 건축가의 권위주의다. 그는 건축가들이 도시의 부유층만을 위해 일하느라 비참한 이집트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다고 꼬집는다. 그리고 전문지식에 근거해 건축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건축가의 오만”도 비판했다.<sup>29)</sup> 둘째는 관료주의의 무능함이다. 그에 따르면 관료들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관성적 집단이므로 혁신적 제안에 대해 결코 협조적이지 않다. 그들은 집을 “제조된 생산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저 최소 조건의 주택만을 제공할 뿐이다.<sup>30)</sup> 셋째는 서구적 현대성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다. 전술했듯 화티는 현대적 주택의 한계를 과거의 흙 건축으로, 그리고 주택 대량건설의 확실성을 이전의 “장인과 고객의 협업”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렇듯 그는 문제의 대안을 서구 건축술이 아닌 이집트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에 대한 화티의 문제제기는 비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는 건축가이자 사회 공공활동가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자신이 마주한 사회 현실을 개선하려 노력했다. 특히 마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지속 가능한 체계로 조직하려 했던 점이 그렇다. 그는 더 이상 도굴로 살 수 없고 농경지마저 부족했던 구르나 주민들에게 “가내공업”을 제안한다. 대리석 조각상, 도기류, 모직물 등의 수공업품 생산으로 이들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는 직업훈련소와 가내생산품 전시장을 설계하기도 했다. 화티는 구르나가 이집트 농촌 재건의 본이 되어 농민들 사이에 “스스로 건설하자(do-it-yourself)”는 운동이 촉발되길 희망했다.<sup>31)</sup> 사회에 대한 이 같은 문제제기와 건축가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이슈는 정기용 건축에서 대표적으로 간파되는 주제다.

## 4. 정기용에게 투영된 하싼 화티의 이미지

정기용에 대한 하싼 화티의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

29) 화티, 1988, 148쪽

30) 화티, 1988, 162~163·228~229쪽

31) 화티, 1988, 146쪽

기』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실례가 정기용의 파리 제6건축학교 졸업논문 및 그가 귀국 후 시도한 흙 건축임은 서론에서 서술한 바다. 그러나 그의 귀국 후 활동을 돌아보면 흙 건축 못지않게,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하싼의 영향력이 감지되는 측면은 “사회적 조절자”로서의 건축가의 역할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2)</sup> 즉,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정기용에게서, 특히 공공건축 프로젝트의 그에게서 하싼의 이미지를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연관성을 파리 건축학교 졸업논문 및 (흙 건축을 포함한) 귀국 후의 실제 작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자.

### 4-1. 파리 제6건축학교 졸업논문(1983)

서울대학교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한 정기용은 1972년 도불해 파리 장식미술학교 실내건축과에서 인테리어를 공부했고, 1975년부터는 파리 제6건축학교(Unité Pédagogique d'Architecture n°6)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그리고 1978년부터 파리 소재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1983년 건축학교 졸업논문으로 「한국 농촌 환경의 변화: 전통 분석에 입각한 집합주택 방법론」을 제출한다.<sup>33)</sup> 그의 원래 관심 주제는 프랑스 교외의 사회주거였는데, 화티의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를 접하고 졸업설계와 논문의 테마를 바꿨다고 한다.<sup>34)</sup> 즉, 한국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근대화과 산업화 시대에 농촌마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건축적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

논문 전체는 서론, 1장, 2장, 3장, 제안, 결론, 참고문헌으로 구성됐으며, 「제안」 장의 농촌마을 계획안 원도면이 별도로 첨부됐다. 본문에 해당하는 1~3장은 각각 ‘전통마을 분석’, ‘전통주거 분석’, ‘농촌세계의 변화’를 다루는데, 정기용의 외가가 있는 충북 영동군의 말그리는 핵심 분석 대상이었다. 그리고 「제안」에서 새마을운동과 근대화로 훼손된 말그리의 농촌마을에 대한 대안으로 그 근처에 새로운 마을을 계획했다. 이 마을은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으

32) 실제로 정기용은 이 책을 읽고 나서 “건축과 사회, 건축가와 윤리 등의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정기용, 『흙과 건축: 잊혀진 정신』, 『사람·건축·도시』, 현실문화, 2008a, 97쪽.

33) 붙어 원제목은 *Mutation du milieu rural en Corée: pour une approche d'un habitat plus collectif à travers l'analyse du savoir-faire traditionnelle*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정기용 아카이브에는 이 논문의 초기본(1983.5)과 최종본이 있다. <그림 6>의 표지 이미지는 초기 논문의 것이며 최종 논문의 것은 소실된 상황인데, 이와 같지 않을까 추정된다. 정기용 아카이브가 학위논문의 연대를 1983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까닭에 본고도 최종본의 연대에 대해 잠정적으로 이를 따른다. 한편, 정기용은 1979년에서 1982년 사이 파리 8대학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 공부했다.

34) 정인하, 2012, 2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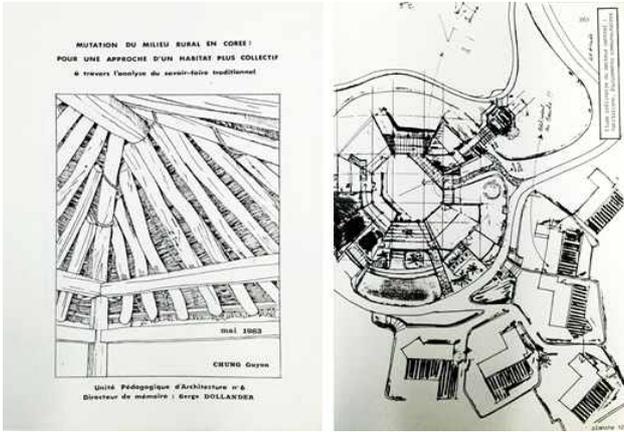


그림 5. 정기용의 파리 제6건축학교 졸업논문 초기본 표지(1983.5) 및 최종본의 말그리 농촌마을 계획안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정기용 컬렉션: 김희경 기증)

로 주변에 다수의 주택이 집합된 양태이며, 주택들은 평면이 제각각 45°로 불규칙하게 꺾이며 연립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자연지형에 순응해 배치됐다. 그리고 건물은 시멘트 블록 기둥 및 현대식 목조 트러스에 비내력의 흙벽 패널이 결합한 유형으로, 태양열을 활용한 온돌난방도 특징이다. 「서론」의 말을 빌자면, 이 같은 계획안은 전통의 “공동체 의식”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농업생산 구조에 적합한 농촌 집합주거를 제안한 것이다. 화티가 전통의 재료와 축조술을 되살려 구르나 마을을 만든 것에 비하면 정기용의 방법은 훨씬 더 현대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간 소외됐던 한국의 농촌을 대상으로 그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도출했다는 면에서 화티의 정신을 충실히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4-2. 하싼 화티 건축의 교훈적 특성에 견준 정기용 건축의 특성

그렇다면 정기용이 귀국 후 진행한 실제의 프로젝트에는 화티의 이미지가 어떻게 투영돼 있을까? 앞에서 제기한 하싼 화티 건축의 세 가지 교훈적 특성에 견줘 정기용 건축의 특성을 서술하자.

(1) 흙 건축

화티와 정기용의 건축을 비교할 때, 흙 건축은 둘 사이의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가장 즉각적인 공통점으로 거론될 수 있는 특성이다. 그러나 이 항목은 흙의 사용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표면적 유사성만큼이나 각각이 추구했던 바나 구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정기용에 대한 화티의 영향이 첫 번째로 반영된 파리 건축학교 논문에 흙벽 패널 내용이 포함되지만, 흙 건축이 논문 주제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귀국 후

우리나라에서 잊힌 흙 건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각지의 흙담과 흙집을 답사하고 연구했다.<sup>35)</sup> 그리고 자기 작품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그 까닭은 모더니즘으로 말살된 “오래된 가치”를 흙 건축을 통해 복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흙 건축에 대한 관심이 화티에게서 비롯됐음을 후일의 글에서도 명확히 밝혔지만,<sup>36)</sup> 이미 봤듯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의 역자 서문에서도 그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1988년 11월에 있었던 이 책의 출판기념회가 「흙 건축과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렸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정기용은 흙다리와 흙집 등을 재현해 보였고, 앞으로 흙 건축 관계서적 번역, 세계 흙 건축 연구기관과의 교류, 우리 흙 건축 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전개해 갈 것을 천명했다.<sup>37)</sup>



그림 6. 구인현(1999) 흙벽시공 모습 및 흙벽 제작용 담틀 (『정기용 건축 작품집: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011b)

이후 경기도 안성과 파주 등지에서 흙 건축을 실험한 그는<sup>38)</sup> 무주 진도리 마을회관(1998)에 흙다짐벽을 도입했고, 영월의 구인현(1999)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실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사한 수법을 춘천 자두나무집(1999), 제천 간디학교 생활관(2006),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사저(2006) 등에도 적용했다. 구인현을 보건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건물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고 공간을 구획하는 벽과 외부 담장이 흙다짐벽으로 구성됐다. 정기용(2011b)의 설명에 따르면 흙 건축에는 “심벽구조(torchis), 토담구조(pise), 흙벽돌구조(adobe)”가 있는데,

35) 그는 안동 하회마을 이규성 가옥을 한국 토담집의 원형으로 간주하는데, 이규성 가옥 토담 담틀을 북촌때 다락에서 찾아내기도 했다. 정기용, 「흙건축-잊혀진 정신」, 건축, 36권 3호, 1992, 16~21쪽. 우연일수도 있으나 흙에 대한 그의 관심은 화티를 접하기 전, 서울대학교에서 도예를 공부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36) 정기용, 위의 글, 1992

37) 「흙 건축 문화 살리자」, 동아일보, 1988.11.3.; 「춤 걸들인 출판기념회」, 경향신문, 1988.11.4.; 「흙집: 건강에 좋고 값도 싸다」, 한겨레신문, 1988.11.5.

38) 그는 1995년 안성의 죽산에 무용가 홍신자의 야외무대 일부와 건물 일부를 토담으로 만든 바 있다. 정기용, 『감응의 건축: 정기용의 무주 프로젝트』, 현실문화, 2008c, 61쪽; 「홍신자 씨 ... 대자연에 그린 구도의 춤사위」, 동아일보, 1995.6.18. 그는 또한 1997년 파주 연다산리의 흙집에 담틀공법을 실험했다. 「첨단빌딩 숲 사이 흙집이 떠오른다」, 한겨레신문, 1999.5.20.

흙다짐벽은 토담구조에 속한다. 이를 위해 그는 우리 전통 담틀의 일부를 철골로 개량해 다짐벽을 만들 수 있었다.<sup>39)</sup> 완성된 건물에서 외적으로는 노출콘크리트 골조를 제외하면 흙벽이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하며, 내부에서는 현관 진입 시의 우측 벽이 흙벽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정기용은 고층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흙벽과 만나며 이루는 분위기에, 그리고 강원도 산골에서 흙벽의 건물이 자연과 어우러짐에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정기용의 흙 건축은 “오래된 가치”를 우리의 현대적 조건에 성공적으로 융화시킨 바라 하겠다. 하지만 그의 흙다짐벽(과 일부에서 사용한 흙벽돌벽)은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내력벽이 아니기 때문에 비구조체라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은 화티가 진흙 벽돌의 벽체 및 돔, 볼트를 기본 구조체로 사용했던 (위 분류가 명명한) “흙벽돌구조(adobe)”와 크게 다르다. 그러나 둘 사이의 더 큰 차이점은 흙 건축을 도입한 근본 배경에 있다. 화티가 진흙벽돌 구법을 사용한 것은 가난한 민중들의 마을 건설을 위한 비용 절감이 절실했기 때문이었고, 이로부터 마을 경제기반 구축 및 공동체 회복이라는 꿈이 도출됐다. 반면, 정기용의 흙 건축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경제성만 따진다면 훨씬 저렴한 구법이 얼마든지 있기에, 그의 흙 건축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리라 기대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따를 듯싶다. 20세기 중반의 이집트와 반세기 후의 한국적 현실에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2) 소통과 협동의 건축

흙의 사용이 일부 프로젝트에 국한된 특성이라면 소통과 협동은 건축활동 일반에 해당할 수 있는 덕목이다.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는 많은 주체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기용의 소통과 협동은 종종 거론되듯 “협치”로 요약될 수 있다. 그의 말(2010)에 따르면 “협치(governance)”란 “정치권력 또는 거대권력이 국민을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을 뜻한다. 그는 “통치에서 협치”로 방향전환을 이루는 탈권위적 현시대에 건축에도 역시 협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건축이 더 이상 예술작품처럼 “개별적 취향”에 매몰될 수 없으며, “다양성의 시대”에 “그 건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40)</sup> 따라서 그의 협치는 건축가의 권위를 내려놓고 다

양한 주체들과 소통한 바를 건축 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화티가 구르나에서 보여준 방식과 유사하지만 차이도 크다. 주민참여와 장인복귀로 대표되는 화티의 소통과 협동이 토속적 방식의 DIY(do-it-yourself)에 비중을 뒀다면, 정기용의 현대적 협치는 건축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에 더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7. 주민과 대화중인 정기용 및 무주 공설운동장(1999) (좌: 『말하는 건축가』, 2012 / 우: 『감응의 건축: 정기용의 무주 프로젝트』, 2008c)

정기용의 작업에서 소통과 협동 혹은 “협치”의 모습이 잘 드러난 초기 사례는 무주 프로젝트(1996~2006)다. 그가 주민들과의 대화 끝에 안성면에는 없는 공중목욕탕을 주민자치센터(1998)에 계획한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sup>41)</sup> 공설운동장 등나무 그늘(1999)은 군수가 주민과 소통하고, 건축가가 자연(등나무)에 감응하여 빚어낸 결과다.<sup>42)</sup> 그는 여러 의사결정 주체를 가운데 특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데, 그간 관료적 시스템 속에서 배제됐거나 형식적으로만 반영됐던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또 부남면 자치센터(1998)의 경우는 건축가의 설계 위에 주민들이 공간을 완성토록 한 사례다. 시간의 경과로 낡은 벽체를 주민들이 페인트 칠하도록 하거나 건물 사이 회랑에 지붕을 씌우게 한 일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건축을 재조직하도록 건축가가 바탕을 마련했기에 가능했다. 정기용은 이를 “쌍방향적 건축”이라 부르기도 했다.<sup>43)</sup>

무주 프로젝트에서 더 나아가, “협치의 건축”의 대표적 예로 정기용은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내세운다. 사업의 구상부터 건물의 계획, 시공, 사용, 운영의 전 과정에 모든 관련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했기 때문이다. 이

41) 자치센터 설계를 의뢰받은 정기용은 논문과 사례를 뒤지는 대신 주민들을 필요를 알기 위해 그들을 찾아갔고, 공중목욕탕이 없어 날타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이례적으로 자치센터에 목욕탕을 계획한다. 정기용, 2008c, 74~79쪽.

42) 당시의 무주군수는 주민들이 공설운동장에 오지 않는 이유가 관람석에 햇빛을 피할 그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관람석을 따라 등나무를 심었으며, 정기용은 그 등나무를 가장 돋보이게 할 구조물을 설계했다. 정기용, 2008c, 131쪽.

43) 정기용, 2008c, 102~108쪽

39) 정기용, 『정기용 건축 작품집: 1986년부터 2010년까지』, 현실문화, 2011b, 130~143쪽. 그가 구인현을 실현할 수 있었던 데는 프랑스에서 흙 건축을 공부했던 신근식 씨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40) 정기용, 『기적의 도서관: 정기용의 어린이 도서관』, 현실문화, 2010, 298~299쪽

프로젝트는 2001년 출범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책사회)’이라는 시민단체가 이듬해 문화방송(MBC)의 한 프로그램(느낌표)과 어린이도서관 건축을 공동 기획해 2003년부터 순천, 진해, 제주, 서귀포, 정읍, 김해 등지에 실현한 사업이다. TV의 영향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 ‘책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의 주체들은 ‘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논의하게 된다.<sup>44)</sup> 여기서 정기용은 독단적 결정권자로서의 건축가 이미지를 지양하고, 모든 주체들과 소통하고 그 의견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것이다.

### (3)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구르나에서 보여준 화티의 건축 못지않게 정기용의 건축은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 특성은 앞서 서술한 흙 건축에 암시적으로, 소통과 협동의 건축에 명시적으로 전제된 사항으로서 건축가의 근본적 지향성과 연관된다. 그는 성장과 교육 배경에서부터 “아웃사이더”로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내포할만했는데,<sup>45)</sup> 68혁명 풍토의 프랑스에서 유학한 바는 이를 더욱 촉진했고, 귀국 후 한국에서 보인 진보적 활동 역시 그 노선 위에 있다고 하겠다.<sup>46)</sup>

화티가 1940년대 이집트에서 제기했던 건축가의 권위주의, 관료주의의 무능함, 서구적 현대성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같은 문제들은 20세기 말의 한국건축에서 고스란히 정기용의 비판 대상이 된다. 건축가의 권위주의나 엘리트주의는, 전술했듯, 정기용이 협치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바다. 그리고 관료주의의 무능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무주 프로젝트 진행 중 접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에 대한 한탄에서 잘 읽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은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감사에 걸리

느냐 안 걸리느냐다. [...] 지금의 건축 발주방식으로는 좋은 건축을 할 수 없다.”<sup>47)</sup> 한편, 서구적 현대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의 말과 글에 빈번히 나타나는 바로서,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 「역자 서문」의 책 번역 동기에서도 명백히 읽을 수 있다. 또한, 그 비판의식은 모더니즘이 배제했던 (흙 건축이 단적으로 보여준) “오래된 가치”의 복원을 주장한 데서도 알 수 있는데, 그는 건축이 “자연” 및 “인간”과 다시 관계함으로써 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48)</sup> 또한, 도구화된 건축이 천박한 자본주의의 부동산 가치로만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 건축의 “거주성”의 회복 역시 그에게는 절실한 과제였다.<sup>49)</sup>

이런 문제제기 및 대안은 결국 건축의 공공성 회복과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촉구로 수렴된다. 그에게 “공공성 회복”이란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닌 “원칙에 소급하는 것”, 즉 “권위와 지배를 벗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소중히 여기며 그 고장에 걸맞는 도시를 창출하는 것”인데,<sup>50)</sup> 이를 위해 건축가는 “사회적 조절자”로서 각종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관련 기술을 조절하고 환경에 감응할 줄 아는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1)</sup> 또한 건축가는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공의 삶”을 어떻게 조직할지 고민하는 사람이기에 “사회가 요청한 것”을 성찰해 그 사회 속에서 비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sup>52)</sup> 각종 사회활동에서는 물론이려니와 무주 프로젝트와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등에서 보여준 정기용의 공공건축 활동은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준 중요한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활동가로서의 화티와 정기용을 비교컨대, 전자가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민중을 위해 새로운 공동체를 조직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후자는 도시화와 현대화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잃어버린 전통과 자연과 인간성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입장이 두드러진다. 큰 범주의 공통점 속에서 개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이이다.

44) 이 사업에서 책사회는 설계를, 지자체는 토지를 마련하며, 공사비는 반씩 분담하기로 한다. 한편, 건축계획 및 운영을 위한 각종의 세미나에는 책사회와 함께 “어린이 도서관 운동을 이끌어온 아줌마들, 지역 유지들,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들, 건축가들, 언론매체와 출판사들 그리고 도서관 운영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조율했다. 정기용, 2010, 22~31쪽.

45) 다소 불우했던 성장 배경, 정검고시 출신이라는 점, 한국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고 ‘거장’에게 사사받지 못했다는 점 등은 그로 하여금 비주류로서의 의식을 갖게 했던 것 같다. 우동선, 「정기용 소론, 건축과 사회와 삶」(국립현대미술관 편, 『그림일기: 정기용의 건축 드로잉』, 현실문화, 2013, 383~395쪽.

46) 그는 민예총 민족건축인협의회 회장(1992~94), 문화연대 공동대표(1999) 등을 역임하고,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건미준, 1993)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건축계와 사회 전체에 변화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민미술관 편, 앞의 책, 2010, 28쪽

47) 정기용, 2008c, 39~40쪽

48) 정기용, 2008c, 294~308쪽

49) 정기용, 「당신은 대합실에 사는가」, 2008a, 20~23쪽. 정기용의 ‘거주성’에 대한 이슈는 하이데거의 유명한 에세이 *Bauen, Wohnen, Denken* 을 염두에 둔 것에 다름 아니다.

50) 정기용, 「공공성의 회복과 지역 공간문화의 활성화」, 2008a, 243~245쪽

51) 정기용, 2008c, 306쪽

52) 정기용, 「공공건축: 건축은 사람들의 삶에 다가가는 일」(이상림 외 16인,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 부키, 2011, 43~44쪽

## 5.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우선, 공공건축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한 정기용(1945~2011)의 지적 바탕에 다양한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집트 건축가 하싼 화티(1900~89)를 발견할 수 있음을 본고는 매우 흥미롭게 봤다. 화티는 서구 모더니즘에 대항해 지역 전통의 가치를 되살린 제3세계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명성은 이집트 농촌의 가난한 구르나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진행했던 구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였다. 그가 직접 프로젝트 경험담을 담아 출판한 *Gourna: A Tale of Two Villages*(1969) 및 이후 판본들은 건축가이자 사회 공공활동가로서 역할 한 화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 책 한국어본인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1988)의 번역자가 정기용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가 프랑스 유학시절 이 책을 접한 뒤 파리 건축학교 졸업논문의 주제를 한국의 농촌 마을로 바꿨고, 귀국 후 우리 전통의 흙 건축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여러 공공의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려 분투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과 둘 사이의 영향관계를 전제로 본고는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의 구르나 프로젝트에 나타난 하싼 화티 건축의 교훈적 특성을 도출하고, 그것이 정기용 건축의 특성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비교 고찰했다. 그 교훈적 특성은 흙 건축, 소통과 협동의 건축,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나뉘볼 수 있는데, 흙 건축은 매우 특수한 주제인 반면 소통과 협동은 건축활동 일반에 해당할 수 있는 덕목이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건축가의 바탕에 깔린 근본 의식의 표출로 볼 만하다. 두 사람의 건축을 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티는 가난한 구르나 사람들을 위해 가장 저렴한 진흙 벽돌 건축을 택했고, 이로써 이집트 전통 조적술의 계승과 사회·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건설을 꿈꿨다. 화티에게서 직접 흙 건축의 영감을 받은 정기용은 흙에 내재한 “오래된 가치”의 회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현대적 조건에서 가능한 범위의 흙 건축을 시도했다. 둘째, 화티가 구르나에서 보여준 소통과 협동은 마을 주민들과 장인들을 과거와 같이 건축작업에 참여시키고 이를 위해 협동조직을 제안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정기용도 공공 프로젝트에서 여러 주체들과 소통하려 애쓰는 가운데 특히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고자 했다. 이 때문에 정기용 건축은 “협치의 건축”으로 불린다. 셋째, 두 사람의 건축활동에는 공히 강한 대사

회적 비판의 메시지가 깔려 있다. 그 비판은 건축가의 권위주의, 관료주의의 무능함, 서구 현대성의 맹목적 추종 등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들은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건축가이자 공공활동가로 역할을 하며, 각자가 마주한 사회 현실을 개선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각각의 교훈적 특성을 폭넓게 공유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서로가 활동한 시대와 장소의 콘텍스트가 달랐던 까닭에 둘의 공유된 특성 내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20세기 중반 이집트에서의 화티가 경제성이라는 지극히 현실적 이유로 흙 건축을 도입해 진흙 벽돌의 조적구법을 사용했다면, 반세기 후 한국에서의 정기용은 문화적 가치의 회복을 위한 흙 건축에 천착해 비내력의 흙다짐벽을 되살려냈다. 또한 화티의 소통과 협동이 주민과 장인이 함께 건축물을 직접 짓는 데에 초점이 있었던 반면, 정기용의 경우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대적 “협치”가 현실적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을 뛰어넘는, 그래서 본고가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 건축의 공유점의 고갱이는 바로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 활동상이다. 이 바탕 위에 본고가 진행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기용의 건축에 대한 평가가 이제 시작이라면, 이 연구가 고찰한 화티와의 연계성도 그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모더니즘 이후 서구 중심의 세계관에 비판적으로 대응했던 지역 건축가들의 활동을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화티든 정기용이든, 각각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본격적으로 뒤따라야 하지만 말이다.

## 참고문헌

1. 하싼 화티,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 민중과 함께 하는 건축』, 정기용 역, 열화당, 1988
2. 정기용, 『흙건축-잊혀진 정신: 한국 전통흙건축의 현주소』, 건축, 36권, 3호, 1992
3. 정기용, 『건축·건축가와 사회』, 건축과 사회, 2호, 2005
4. 정기용, 『사람·건축·도시』, 현실문화, 2008a
5. 정기용, 『서울 이야기』, 현실문화, 2008b
6. 정기용, 『감응의 건축: 정기용의 무주 프로젝트』, 현실문화, 2008c
7. 정기용, 『기적의 도서관: 정기용의 어린이 도서관』, 현실문화, 2010
8. 정기용, 『정기용 건축 작품집: 1986년부터 2010년까지』, 현실문화, 2011b

## 74 논문

9. 일민미술관 편, 『감응: 정기용 건축』, 일민미술관, 2010
10. 국립현대미술관 편, 『그림일기: 정기용의 건축 드로잉』, 현실문화, 2013
11. 정인하, 「건축가 정기용의 사상 형성과 프랑스 68혁명의 지식인들」, 프랑스학연구, 61권, 2012
12. 김무경, 「건축에서의 ‘일상성’과 ‘공공성’: 정기용의 공공 건축 연작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16권, 2014
13. 전동진, 「건축가 정기용과 공(共)창조성의 철학」, 존재론연구, 34권, 2014
14. 심광현, 「시간을 설계하는 감응의 건축가」, 문화과학, 66호, 2011
15. 정재은, 「말하는 건축가」(영화), 두타연, 2012
16. Hassan Fathy, *Architecture for the Poor: An Experiment in Rural Egyp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73
17. Chung Guyon, *Mutation du milieu rural en Corée: pour une approche d'un habitat plus collectif à travers l'analyse du savoir-faire traditionnel*, Unité Pédagogique d'Architecture n°6, 1983
18. J. M. Richards, I. Serageldin, D. Rastorfer, *Hassan Fathy*, Concept Media, Singapore, 1985
19. James Steele, *Hassan Fathy*, Academy Editions, London, 1988
20. James Steele, *An Architecture for People: the Complete Works of Hassan Fathy*, Whitney Library of Design, New York, 1997
21. Ismail Serageldin, *Hassan Fathy*, Bibliotheca Alexandria, Alexandria, 2007
22. Ahmad Hamid, *Hassan Fathy and Continuity in Islamic Arts and Architectur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Cairo, 2010
23.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Safeguarding Project of Hassan Fathy's New Gurna Village: Preliminary Phase Document*, 2011
24. World Monument Fund, *New Gurna Village: Conservation and Community*, 2011
25. Hana Taragan, "Architecture in Fact and Fiction: The Case of the New Gurna Village in Upper Egypt", *Muqarnas*, Vol.56, 1999
26. Paul Duggan, *Villager Participation in the Relocation of El Gurna*, Egypt, Clemson University, Ph.D Thesis, 2012

접수(2016. 8. 13)

수정(1차: 2016. 10. 13, 2차: 2016. 10. 21)

게재확정(2016. 10. 21)